



금융위원회

## 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9. 22.(목) 14:00
담당 부서	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 김광일 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은향 (02-2100-2691)

## 김주현 금융위원장, 「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원 20주년 기념 좌담회」 참석·축사

### 1 행사 개요

- 주제 :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원 20주년 기념, 新사명(“한국ESG기준원”)을 선포하고,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
- 일시/장소 : '22. 9. 22.(목) 14:00 /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
- 주요 일정
  - (개회사)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
  - (축사) 김주현 금융위원장,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
  - (新사명 선포식) 新사명(“한국ESG기준원”) 및 CI 소개
  - (주제발표) “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”  
(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본부장)
  - (좌담회) 좌 장 :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
토론자 : 김광일 공정시장과장, 윤태일 KB자산운용 본부장,  
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,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,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

## 2 금융위원장 축사 요지

-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「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원 20주년 기념 좌담회」에 참석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, 향후 ESG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.
  - 서두에서, 김 위원장은,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에너지 위기 등으로 ESG가 중장기적으로 실천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,
    - “ESG”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
  - 김 위원장은, ESG공시와 평가의 일관성 등에 대한 우려, 주요 선진국의 ESG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,
    - 앞으로 ESG기준원이 “지적인 리더십(intellectual leadership)”을 발휘하여 ESG 논의를 주도하고, 국내 기업들의 ESG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  - 나아가 정부도, 우리 경제의 “지속가능한 성장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SG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    - 첫째, 국내 ESG공시 의무화\*에 대비하여 ESG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- \* 「지속가능경영보고서」 공시 의무화 일정  
: (현행)자율 → ('25~)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 → ('30~)全 코스피 상장사
- 글로벌 논의동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도 균형 있게 감안하여,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
- 둘째, ESG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, ESG평가기관의 평가모델의 적정성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개와 이해상충 방지 등에 대한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 - 셋째, 범부처 합동으로 ESG역량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교육·컨설팅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
- 끝으로,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, 투자와 기업성과 측면에서도 보다 좋은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ESG평가의 신뢰도와 유용성을 높이는 “선순환 구조”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,
- 「한국ESG기준원」이 이러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.

※ 별첨 : 금융위원장 축사